

어본존(御本尊)님은 내마음속에!

스지 부회장 지도

먼저 어본존을 배례한다는 것입니다만, 어본존은 불단속에 계시지만 南無妙法蓮華經라고 하는 부처의 생명은 우리들 속에 있다. 자기 속에 우주대(宇宙大)의 깊은 곳으로부터 쭉 부처의 생명이 솟아오른다고 확신하여 어본존을 믿어 나가는 것이다. ‘부처도 지옥도 우리 속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법화경이다.

외부에 신(神)이 있다든가 죽어서 극락정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외도(外道)라고 한다. 그러나 생명 속에 있기는 하지만 솟아오르지 않는다. 바깥에 연(緣)을 맺고 비로소 속으로부터 솟아오른다. 바깥의 어본존을 믿고 자기 속의 부처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바깥의 어본존은 연, 불연(佛緣)이며 자기 속의 부처는 인(因), 불인(佛因)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 있는데 거지와 같이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어본존에게 빌고 있다는 것은 유치한 것입니다. 바깥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속에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공덕이 약한 것입니다. 어본존이 자기 속에 있다고 생각해서 빌면 된다. 나의 흥중이 남묘호렌게교(南無妙法蓮華經)로 된다. 기쁘다고 생각하고 배례하십시오.

그것이 어서 1244 페이지에 “이 어본존을 전혀 다른 곳에서 구하지 말지어다. 오직 우리들 중생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남묘호렌게교(南無妙法蓮華經)라고 부르는 흥중의 육단에 계시느니라. 이를 구식심왕진여의 도(九識心王眞如之都)라고 함이라” 전혀 자기의 바깥에 어본존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본존을 믿어도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황송스럽게 되고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러면 마음이 즐겁게 되므로 그것을 구식심왕의 도, 成佛이라고 한다.

생신 그대로 성불하는 생신묘각, 즉신성불(生身妙覺, 卽身成佛)이다. 그것을 알게 되면 병들은 부처는 없는 것이다. 나의 병은 반드시 낫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확신인 것입니다. 자기 속에 솟아오른 부처가 행복을 부르는 것이다. 자식으로 되어서, 돈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면 돈을 부르고, 집을 갖고 싶다고 하면 집을, 직장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 직장을, 원하는 대로 부르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실직하면 직업을 부른다고 하듯이, 갖고 싶은 것을 전부 부르는 생명이 자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서에 있는 흥중이란 가슴속이며, 육단은 육체의 속입니다. 나의 이러한 범부의 죄장(罪障)이 깊은 흥중에, 육체 속에 어본존과 같은 생명이 솟아오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심인 것입니다.

거기에 솟아오른 남묘호렌게교를 이번에는 깊이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스며들게 하면 지혜가 솟아올라서 지혜가 뛰어나게 되고, 뇌종양이 낮고, 노이로제가 낮고, 이것이 눈 속까지 스며들게 되면 눈이 보이게 된다. 귀도 코도 나쁜 부분이 낮는다. 가슴속까지 스며들게 되면 심부전, 심장병, 고혈압 등이 낮고, 배속까지 스며들게 되면 자궁암, 대장암 등 각종 암이라든가, 종양이 낮습니다. 수족의 끝까지 스며들게 되면 류마치스나 교원병이 낮고, 혈관까지 가면 백혈병이 낮는다.

가슴속에 남묘호렌게교 여래가 솟아 나타났으므로 깊이 스며들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서 384 페이지 “깊이 신심을 일으켜서 일야조모(日夜朝暮)로 또한 게으름 없이 닦을지어다. 어떻게 닦는가 하면 오직 남묘호렌게교라고 봉창(奉唱)함을 이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남묘호렌게교라고 제목을 부르고 있을 때는 생명을 연마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본존을 믿는데 언제까지 가도 상태가 나쁘다는 것은 연마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행을 ‘빨리 해버리자’ 따위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적당하게 해치우고 다른 것을 하자’는 근행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공덕이 적은 것입니다. 깊이 스며들게 해서 아주 정중하게 머릿속에서, 목에서, 배에서, 혈관 속에서 발가락 끝까지 남묘호렌게교로 닦아나간다. 생명 속으로부터 닦아나가는 것을 근행이라고 합니다.

빨리 해치우고 텔레비전을 보자든가 빨리 해치우고 자야겠다 라든가 그러한 생명은 사실상 어본존에게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음미하면서 맛있는 진수성찬을 맛보듯이* 근행을 한다. 그것을 경문에는 색향미미(色香美味)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착실히 근행창제(自行)를 하면 할수록 공덕도 나오고, 공부(學)의 힘도, 절복(化他)의 힘도 나온다. 그러므로 착실히 근행창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절복(折伏), 절복이라고 말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속에 묘법(妙法)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황송스럽다. 어떻게 하든 남에게 알려 주어 행복하게 해 주고 싶다. 기뻐하며 어본존을 믿고 100% 공덕이 나오도록 해 주고 싶다. 모두에게 행복하게 해 주고 싶다”고 그렇게 안타깝게 진심을 다하여 호소하는 것이 절복입니다. 그렇게 하면 머리털 끝에서부터 발톱 끝까지 생명이 남묘호렌게교로 되는 것이지요.

그때 “나와 똑같은 공덕으로 되는 것이라네” 라고 어본존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이 해 주고 싶다네. 부모와 자식사이 이므로 어본존의 재산은 전부 주고 싶단다. 나의 재산은 우주대이고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여래의 지견은 광대심원이라는 광대(廣大-우주대(宇宙大), 심원(深遠-영원(永遠), 우주대의 공덕을 영원히 맛보는 것을一念三千이라고 합니다. 삼천세계에 통하기 때문에. 자기가 남묘호렌게교로 되었을 때에 그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일대사(一大事)라고 한다. 일대사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의 경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건을 세간에서는 일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대사는 ‘당신의 생명이 묘호렌게교이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묘(妙), 목은 호(法), 가슴을 렌(蓮), 배는 게(華), 다리를 교(經), 당신의 몸이 묘호렌게교라는 오중의 탑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네 라고 설하고 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자각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모르는 것을 미혹이라고 한다. 어본존을 믿고 있어도 미혹인 것입니다.

사종(邪宗)을 믿어 와서 머리에 해독이 남아 있다. 선조대대로 부터의 사종의 찌꺼기가 짝 차 있으므로 노이로제에 걸린다든가, 암이 생긴다든가, 류마치스에 걸린다든가, 각종 병에 걸린다. 칠대 전부터 쑥 스며들어 오고 있는 그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신심을 하고 있어도 병에 걸린다든가 한다. 그것이 방법이 스며들고 있는 것이라고, 어서의 1430 페이지에 “악(惡)중의 대악은 나의 몸에 그 고(苦)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子)와 손(孫)과 말(末)의 칠대(七代)까지도 걸리느니라. 선(善)중의 대선도 또한 이와 같노라. 목련존자가 법화경을 믿은 대선은 자신이 부처가 될 뿐만 아니라 부모도 부처가 되셨도다. 상칠대, 하칠대, 상무량생, 하무량생의 부모등도 의외로 부처가 되셨느니라.” 악중의 대악-제일의 악은 방법(謗法)입니다. 생명(生命)의 법률위반을 방법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법률위반, 교통위반에도 벌금·징역이 있다. 속도위반을 하고도 ‘몰랐습니다’ 해도 벌금을 징수 당합니다. 알던 모르던 벌은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법률위반(방법)도 알던 모르던 생명에 오는 것입니다. 종교는 자유이므로 어떤 종교를 믿어도 벌금은 없으나 벌(罰)은 있습니다. 생명에 벌이 오는 것입니다.

가령 신(神)을 믿고 기도하면 노이로제 등, 반드시 신경에 옵니다. 법화경을 비웃는 벌은 전부 내장에 옵니다. 혈압, 간장, 심장, 신장, 류마티스, 당뇨, 천식 등 그러한 속에 오는 것은 비웃은 죄 때문입니다. 신경에 오는 조울병, 정신분열, 간질발작, 이명(귀울음), 또 등교를 거부한다든가, 곱사가 된다든가 하는 것도 전부 기도에서 옵니다.

대악(大惡)은 나의 몸에 고(苦)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쪽으로부터도 어머니 쪽으로부터도 칠대 전부터, 출가하면 남편 쪽으로 부터도 또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마치 시커먼 걸레 같습니다. 신심을 하여 생명을 연마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그것을 제목으로 클리닝하고 닦는 것이기 때문에 찜병찜병 제목으로 생명을 세탁해 나갑니다.

“선조가 사(邪)된 종교를 했습니다. 어본존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집은 선종, 염불종, 미신을 믿어 왔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사죄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선조대대의 방법을 사죄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괴로움은 제가 방법의 집에 태어나서 제가 만든 것입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저의 방법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땅바닥에 머리를 비벼대는 그러한 심정으로 사죄하는 것을 참회멸죄(懺悔滅罪)라

고 합니다. 이것이 제일(第一)입니다.

제이(第二)가 결의발표, “열심히 광선유포를 하겠습니다. 절복 홍교에 선조대대의 뭇까지 힘쓰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방법과 저의 집의 방법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반장이라면) 우리나라 제일의 반장이 되겠습니다.

약속하겠사오니 저의 병을 낮게 해 주십시오. 아이의 병을 낮게 해주십시오. 일가화락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원이 세 번째입니다.

사죄하는 것이 제일(第一), 결의발표가 제이(第二), 제삼(第三)이 기원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배례한다. 불단 속에 어본존을 황송스럽게도 자기몸속에 용현시켜 남묘호렌게교라고 생명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는 妙, 목은 法이라고 하듯이 어본존과 같은 공덕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선(善)중의 대선은 나 자신이 부처가 될 뿐만 아니라 부모도 부처가 된다”는 굉장한 어본존입니다. 남묘호렌게교라고 생명을 연마하면 자기가 부처가 될 뿐만 아니라 부모도 부처가 됩니다. 부모에게도 공덕이 갑니다. 상칠대 하칠대로 양쪽에 공덕이 갑니다.

어본존님 아무쪼록 선조의 뭇까지 하겠으므로 저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념해 나가면 최초의 선조까지 ‘ 짹’하고 해일이 덮치듯이 공덕이 갑니다. 자기가 강의 상류인데, 신심을 그만 두면 선조가 상류가 되어 선조의 죄업까지 잇따라 옵니다. 내가 강하게 되면 선조도 아들도 손자도 전부 구제 됩니다. 그래서 확신이 강하느냐, 강하지 않느냐. 자기가 상류가 되는가. 하류가 되는가로 결정되어 집니다. 자기가 신심이 강성하면 숙명을 타개 할 수 있다. 이것이 일대사, 결국은 제목으로 다시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물들게 하는 것이 매일 매일의 근행창제입니다.

그저 조석·근행창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물들게 할 수 있는가 어떤가 입니다. 선조의 사종을 뽑아낼 수가 있는가 어떤가 입니다. 그것이 어서의 1474페이지 “대저 눈은 매우 희기 때문에 물들여도 물들지 않으며, 옷은 매우 검기 때문에 희게 되는 일은 없느니라. 이것보다도 변하기 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며 선악에 물들여 지느니라. 진언, 선, 염불종 등의 사악한 자에 물들여지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고, 법화경에 물들여지면 반드시 부처가 되느니라.” 고 선종, 진언의 단가총대를 한다든가, 염주를 돌리며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사종에 물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속에 남묘호렌게교가 있으므로 쏙 어본존을 흐르게 하면 된다. 먼저 머릿속으로 부터 남묘호렌게교라고 스며들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본존의 공덕은 즉신성불, 소생하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경문에 심회연모(心懷戀慕)라고 있는데, 마음에 어본존을 흠모하고 그리워하는 것, 어본존이 제일 좋다고, 연인을 만나고 싶듯이 어본존을 받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귀찮지만 근행한다든지, 성가시다 성가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귀찮지만 데이트를 할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데이트 할 때는 기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연인을 만나게 되면 즐겁고 기쁘듯이 어본존을 배례하는 것이 심회연모입니다. 그때 백점 만점의 근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서 1558페이지에 있습니다.

“끓어서 음식을 원하고 목이 말라서 물을 그리워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듯이 병에 약을 의지 하듯이 아름다운 사람이 연지분으로 화장하듯이 범화경에 신심을 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 할 것이로다” 그러한 근행을 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근행을 하고 있으면 공덕은 나옵니다만 백점 만점의 근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남묘호렌게교이다. 즐겁고 기쁘다. 어본존 앞에 앉게 되어 감사합니다. 근행이 정말 즐겁게 되었을 때가 백점만점입니다. 끓어서 음식을 원하고 배가 몹시 고파서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한 기분으로 어본존을 믿는다. 목이 말라서 물을 그리워하듯이 마시고 싶다! 한잔의 물이 몹시 고맙듯이 어본존을 믿어나간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듯이 연애하고 만나고 싶듯이 심회연모 한다. 어본존이 그림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당신속이 남묘호렌게교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병에 약을 의지하듯이 병자는 약을 소중히 한다. 신심을 하고 있어도 설사를 하면 설사를 멈추는 약을 먹고 감기가 들면 감기약을 먹듯이 약은 중요합니다. 그와 같이 어본존을 소중히 한다. 아름다운 사람이 연지분으로 화장하듯이 여성이 화장 도구를 잊어버리지 않듯이 어본존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범화경에 신심을 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 할 것이로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신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심을 하다가 말다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생명으로 되면 한번의 남묘호렌게교로 한 번에 부처가 되고 만다.

그래서 한번이라도 적지 않으며, 백만번이라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 싫어하며 열 시간 하는 것 보다 그림다고 하는 30분의 제목이 굉장합니다. 뼈 속까지, 혈관 속까지 쭉 스며들기 때문에 “나머지 8시간이다. 앞으로 6시간이다. 누가 열 시간 제목을 정했을까. 대간부중의 누구일까. 권장일까. 부인부장일까. 아니다 아니다. 나머지 6시간.” 그러한 근행창제로는 안됩니다. 열 시간 한 후 만세를 부르는 것 보다 어본존은 뼈 속까지 혈관 속까지 남묘호렌게교로 만들어 주시니 고맙구나. 선조가 부르지 못한 뭇까지 열심히 하자! 이렇게 결의하고 한 시간의 제목을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모른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행복의 도구가 전부 갖추어진 것을 부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돈으로 고생할 리가 없다. 자식 때문에 울리가 없다. 병으로 고생할 리가 없다. 병자는 건강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된다. 가정은 일가화락 됩니다. 모두가 즐겁고, 일어나도 즐겁고,

일을 해도 즐겁고, 자고 있어도 좋고, 그것이 상락아정(常樂我淨), 즉 生도 歡喜, 死도 환희, 그것을 부처라고 합니다. 그것은 몸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을 부르면 남묘호렌계교여래(如來)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어서 1022페이지에 “삼국(三國) 및 일염부제(一閻浮提)의 사람들의 참회멸죄의 계법(戒法)일 뿐만 아니라 대범천왕(大梵天王), 제석(帝釋)등도 밟아야 할 계단이기도다” 라고. 전 세계의 사람이 등산하여 대어본존을 뵈고, 가득 찬 방법을 믿어온 것을 사죄하는 것이 어본존을 배알하는 의의인 것입니다만, 지금 총본산 대석사는 닛켄으로 인하여 방법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회관이나 가정에 안치된 어본존을 성심껏 배례 하면 대어본존에게 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방법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사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謗法)이 없어지면 한 번에 공덕은 나오는 것입니다. 무시이래죄장소멸(無始以來罪障消滅) (구원원초의 옛날부터 죄장소멸) 가내안전일체무장애(家內安全一切無障礙)(가내는 안전하고, 일체가 무장애), ‘죄장소멸’이 먼저이고, ‘가내안전 일체 무장애’ 라고 공덕이 뒤입니다. 방법을 사죄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고 광선유포를 위해, 사종(邪宗)이 꼭 찬 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용맹전진하면 변독위약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착실하게 한사람 한사람이 기뻐하며 근행을 하고, 환희중의 대 환희, 백점만점의 근행을 해서 이 지역의 땅을 불국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지 부회장 지도 중에서 발췌—

<끝>